

朝鮮前期 陶磁樣式 展開에 있어서 製作技術과 形式의 變化

京畿陶磁博物館 館長
張起熏

I. 序論

朝鮮前期는 高麗末의 도자전통을 계승한 粉靑沙器와 白磁, 明陶磁의 영향을 받은 新樣式의 硬質白磁와 白胎靑釉磁가 공존하면서 점차 조선이 추구한 경질백자 중심의 도자양식이 전개되는 시기이다. 또한, 制度的으로는 所手工業 體制에서 官營手工業과 民營手工業이 二元化되어 定着하는 過程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조선전기 도자양식은 官窯의 設置, 白磁窯業의 地方 擴散, 技術的 發展 등 단계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綜合的이고 有機的인 檢討는 미진한 형편인데 이는 그 동안의 朝鮮前期 陶磁研究가 분청사기 혹은 관요백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 考에서는 조선전기 도자양식의 세부적인 展開양상을 官窯와 地方窯(民窯) 관계를 통해서 특히, 제작기술과 형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392년부터 17세기 초까지 조선전기를 대략 ① 官窯設置以前, ② 官窯設置以後~16世紀 前半, ③ 16世紀 後半~17世紀 初로 우선 세분하였다.¹

¹ 韓國陶磁史에서 朝鮮前期는 研究者마다 약간씩 다르게 編年한다. 鄭良謨는 1392~1649년, 姜敬淑은 1392~1600년, 尹龍二는 1392~1550년으로 보고 있으나 筆者는 朝鮮中期 양식의 시점을 祥林里 分院가마의 운영시기(1628~1636년 전후)인 1620년대 후반경부터로 본다.

II. 官窯設置 以前

朝鮮 開國初期 王室과 官廳에서 所用되는 도자기는 全國의 여러 가마에서 燔造하여 貢納되었다. 1424~1432년간 조사된 ·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전국에 磁器所 139개소와 陶器所 185개소, 모두 324개소의 陶磁器所가 표시되어 있는데 전국에 散在된 이들 도자기소로부터 중앙에서 도자기를 貢納받기 시작한 것은 이미 고려 말부터이다.²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조선초기에도 공납되는 도자기에 官司銘과 匠人銘을 쓰게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동안 지속되었다.³

적어도 分院官窯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공납된 전국 도자의 주류는 분청사기이다. 현재 考古學的 자료로는 대부분의 磁器所에서 粉靑沙器가 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京畿道 廣州와 慶尙道 高嶺, 全羅道 南原, 江原道 楊口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백자도 貢納되고 있었다.⁴

당시 분청사기와 백자를 살펴보면 대체로 15세기 전반의 도자는 高麗系 도자의 전통이 이어진 가운데 京畿道 廣州를 중심으로 새로운 백자와 청자의 양식이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대표적인 분청사기 가마터로는 ‘光山’ 명이 출토된 光州 忠孝洞 가마遺蹟의 W2지역 8層,⁵ ‘蔚山仁壽付’, ‘慶州長興庫’ 등 명문이 출토된 釜山 機張 上長安 가마遺蹟,⁶ ‘內資執用’ 명이 출토된 大田 舊完洞 가마遺蹟,⁷ ‘司膳’ 명이 출토된 慶北 尙州 上板里 가마遺蹟, ‘內贍’ 명이 출토된 全北 完州 花心里 가마遺蹟과 全南 谷城 龜成里 가마遺蹟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² 『高麗史節要』 34 恭讓王 1年 12月條.

³ 『太宗實錄』 13年 7月 16日, 17年 4月 20日, 『世宗實錄』 世宗 3年 4月 16日條.

⁴ 成俔(1439~1504), · 慵齋叢話· 卷10, “人之所用陶器最緊, 今麻浦露梁等處, 皆陶埴爲業, 此皆瓦器缸甕之類, 至如磁器, 順用白土精緻燔造, 然後可中於用, 外方各道多有造之者, 惟高靈所造最精, 然不若廣州之尤爲精也….” ; 金宗直(1431~1492), 『佔畢齋集』, 「彝尊錄」下, “高靈歲貢白砂器…遂教其下九節之法, 精緻鮮潔, 居廣州南原之右先是.” ; 이화여 자대학교박물관· 양구군, 『楊口方山の 陶窯址-地表調査報告書』 (2001).

⁵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직할시,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1993), pp. 157~158.

⁶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기장군, 『機張 上長安遺蹟』 (2011).

⁷ 대전광역시·해강도자미술관·호암미술관, 「대전 구완동 상감청자가마터 발굴조사 지도 위원회 회의자료」 (1996).

⁸ 전북문화재연구원.(주)오케이, 『완주 화심리 유적-완주 오케이골프장 조성부지내 문화 유적 발굴조사』 (2008) ; 전남문화재연구원, 『곡성 구성리 도요지』 (2005).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가마들은 모두 경사면에 길게 조성된 單室登窯(龍窯)인데 대체로 길이는 25m 내외, 內壁 너비는 1.2~1.6m 내외이다. 側面出入門을 기준으로 燔造室을 구분해 사용한 흔적은 있으나 각 칸을 분리하는 구조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가마터에서 출토된 象嵌·印花粉靑沙器들은 대부분 口緣內灣形 大樸과 口緣外反형 鉢, 樸匙들로 굽을 竹節形으로 깎고 전면 혹은 굽을 제외한 全面에 施釉하였으며, 광주 충효동 같은 일부 가마에서는 圓筒形, 구멍 뚫린 鉢形갑발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匣鉢을 사용하지 않고 3~5개의 태토빚음을 받쳐 높은 원통형 도지미 위에 놓고 포개구이 한 것이 특징이다.⁹ 대체로 이와같은 형식과 기법적인 특징은 고려말 漕運의 마비로 康津과 扶安의 요업이 와해되고 匠人집단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계승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백자가마로는 ‘禮賓寺’, ‘恭安府’ 銘이 출토된 江原道 楊口 方山面의 松岷里 5호, 7호와 ‘長’ 銘이 출토된 金岳里 1호, 2호 가마遺蹟,¹⁰ ‘內用’, ‘司’ 명이 출토된 京畿道 廣州의 牛山里 2호, 17호와 建業里 2호 가마遺蹟을 들 수 있다.¹¹ 金剛山 月出峰에서 발견된 ‘洪武 24年(1391) 銘 白磁舍利器’의 제작처로 여겨지는 양구 방산의 백자는 다소 거친 태토에 淡綠色 灰釉系 釉藥을 施釉한 것이 특징으로 발과 대접의 형태는 분청사기에 가깝고 굽 받침 역시 태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하지만 廣州지역의 백자는 분청사기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을 띠고 있어서 주목된다.

廣州 우산리와 건업리에서 출토된 백자는 발이나 접시의 안바닥 중앙에 圓刻이 있으며 몸체의 측선이 S자형을 그리면서 口緣이 外反된 형식이다. 원통형 갑발을 사용한 良質은 굽을 逆三角形으로 깎고 全面施釉 한 다음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으며 粗質白磁는 죽절굽에 태토빚음을 받쳐 높은 원통형 도지미 위에 놓고 구웠다.

⁹ 예외적으로 공주 학봉리 가마터의 인화분청사기는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 하였다.

¹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양구군, 앞의 책(2001); 楊口郡·翰林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楊口郡-』(2008); 양구백자박물관·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문서연구센터, 『양구백자·백토 학술자료집』(2012).

¹¹ 海剛陶磁美術館,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1995); 同著,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Ⅱ)』(1999); 同著, 『廣州 建業里 白磁窯址』(2000).

또 같은 형식의 청자도 발견되는데, 이 청자는 白土위에 靑磁유약을 시유한 것으로 형태와 기법에서 高麗靑磁와 차이가 있다. 또한 우산리와 건업리의 가마는 그 구조가 분청사기 가마들과 유사하나 번조실 칸 사이에 돌이나 도지미를 쌓아서 만든 分焰柱가 1~2개씩 놓였던 흔적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15세기 전반에 보이는 새로운 백자와 청자의 기술적인 원류는 아직까지 분명치 않으나 『朝鮮王朝實錄』에는 世宗(1418~1450)부터 成宗年間(1469~1494)까지 明의 백자와 청자가 明使와 日本國, 琉球國 使節들에 의해 朝鮮에 꾸준히 流入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소개된 중국도자가 조선도자의 수요확산과 형식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믿어진다.¹²

정리하면 分院 설치이전의 도자양상은 그 系統과 地域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高麗系의 粉靑沙器와 軟質白磁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新樣式系의 靑磁(白胎靑釉磁)와 硬質白磁가 廣州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양식계통 간에 原料와 造形形式은 차이가 있지만 粉靑沙器와 新樣式 白磁의 匣鉢 形式이 다른 점을 제외하면 燐法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양질의 백자와 분청사기는 逆三角形굽에 全面施釉한 다음 갑발에 넣고 모래를 받쳐 구웠다.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질의 분청사기와 백자는 죽절굽에 태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웠는데 도지미는 높은 원통형이다. 이와같은 방식은 高麗末 靑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전기 도자양식의 형성에 있어서 外來 기술유입은 극히 미약했음을 추측케 한다.

Ⅲ. 官窯設置 以後~16世紀 前半

¹² 『朝鮮王朝實錄』에서 明으로부터 靑磁와 白磁의 유입은 太宗 17年(1417) 7月 21日, 世宗 10年(1428) 7月 19日, 11年(1429) 1月 27日, 5月 2日, 11月 2日, 12年(1430) 7月 17日, 文宗元年(1450) 8月 5日條, 日本과 琉球로부터 靑磁와 白磁 유입은 世宗 1年(1419) 8月14日, 5年(1423) 9月24日, 10月15日, 13年(1431) 11月14日, 文宗 元年(1450) 10月 7日, 成宗 5年(1474) 12月 24日, 8年(1477) 6月 6日, 11年(1480) 6月 7日, 25年(1494) 5月 11日條를 참고할 것.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은 世宗年間(1418~1451)을 전후하여 明白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일어나면서 廣州 일대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백자도 생산하고 있었다. 곧이어 1467년경 조선왕실은 관청 및 궁중에서 사용할 고급백자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官窯인 司饗院 分院을 설치하였다.¹³

分院은 이전부터 질 좋은 백자를 생산하던 京畿道 廣州에 설치되어 6個面の 柴場 내에서 옮겨가며 운영되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漢陽에서 가깝고 漢江을 이용한 운송이 편리할 뿐 만 아니라 펄감이 무성하여 官窯를 운영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의 주요 白土產地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았을 뿐 만 아니라 전국의 沙器匠 1,140명을 3교대로 나누어 한번에 380명이 분원에 모여 賦役을 지고 백자를 만들도록 法으로 정하였다.¹⁴ 그리고 사옹원에서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씩 燔造官을 파견하여 그릇 만드는 것을 감독하였다.

이 시기 분원가마터 遺蹟은 광주 일대에서 다수가 발굴조사되었으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곳은 ‘奉先’, ‘太一殿’, ‘英’ 명과 함께 墓誌片이 출토되어 1470년대 분원초기 가마로 여겨지는 牛山里 4호와 ‘壬寅(1542)’ 銘 陰刻墓誌片이 출토된 牛山里 9호 가마遺蹟,¹⁵ ‘乙丑(1505)’ 銘 土棒이 출토된 道馬里 1호 가마遺蹟,¹⁶ 그리고 각각 ‘嘉靖三十三年(1554)’ 과 ‘嘉靖壬子(1552)’ 년명 陰刻墓誌가 출토된 樊川里 5호와 9호 가마遺蹟 등이다.¹⁷

¹³ 朝鮮官窯의 설치시점에 대한 여러 의견 중 타당성이 있는 것은 金英媛의 견해로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學研文化社, 1995)에서 司饗房이 司饗院으로 개칭되는 1467년에서 『慶尙道續纂地理誌』 편찬(1469年 正月)이전인 1468년 사이에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田勝昌은 「京畿道 廣州 官窯의 設置時期와 燔造官」(『미술사연구』 제22호(2008))에서公私間 백자 사용과 백토의 도용을 금지하는 1466년 6월을 관요의 설치 상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¹⁴ 『經國大典』에는 司饗院 소속 沙器匠 정원이 380명으로 明記되어 있으며, 『承政院日記』 仁祖 3年 7月 2日條에는 法典 내에 규정된 戶奉足이 1,140명이라 하였다.

¹⁵ 梨花女子大學敎博物館,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 附 牛山里 9호 窯址 發掘調査報告 -』(1993); 牛山里 4호는 2015년 京畿陶磁博物館에서 발굴조사하였으며 아직 보고서 未刊이다.

¹⁶ 國立中央博物館,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1995).

¹⁷ 梨花女子大學敎博物館, 『廣州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 樊川里 5號.仙東里 2,3號 -』(1986); 同著, 『廣州 上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2007).

그 중 가마가 발견된 우산리 9호와 변천리 5, 9호는 가마의 길이가 26m가량으로 이전시기와 유사하나 내벽 너비가 최대 2.2m로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마내 分焰柱가 돌이나 갑발을 여러층으로 쌓아 만든 것으로 定型化되어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이 점은 도지미가 높은 圓筒形에서 圓盤形으로 낮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가마내 火焰의 循環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가마바닥부분까지 고온에 도달할 수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들 분원가마터에서 출토된 백자는 크게 匣鉢을 사용하거나 단독으로 고운 모래를 받쳐구운 逆三角形굽의 良質과 竹節굽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운 粗質로 구분되는데, 양질백자의 경우 대체로 1560년대까지는 굽 안바닥에 굽기 전 釉面을 긁어 음각한 ‘天’, ‘地’, ‘玄’, ‘黃’의 명문이 있는 것이 발견된다.¹⁸鉢과 盞, 樸匙 등 白磁飯床器들은 대부분 口緣이 外反되고 內底圓刻이 있다. 또한 백자와 같은 형식의 백태청유자와 제기 등 일부 器皿에서 소량의 분청계통이 제작되었다. 이 점은 분원설치 이전부터 廣州지역 가마에서 보이던 특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만 이전과의 차이점은 양질과 조질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청화백자를 포함한 양질백자의 생산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분원이 설치된 직후 15세기 말 지방의 분청사기 생산은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世宗實錄· 「地理志」에 전국에 陶磁器所가 모두 324개로 기록된데 비해서 1478~1486년 만들고 1530년 증보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자기, 사기, 도기소를 합쳐 모두 49개만이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¹⁹ 조선전기의 분원이 전국에서 出役한 지방 사기장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므로 분원 설치이후 지방의 요업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소된 요장은 대부분 분청사기 가마로 판단되며 지방에서 백자생산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中宗年間(1506~1544)에는 도자기 생산이 미약했던 平安道, 咸鏡道 등 六鎭의 官

¹⁸ 김경중, 「16세기 중·후반 조선관요 운영시기 및 제작양상 연구」, 『야외고고학』 제15호(2012), pp. 244~265.

¹⁹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全國에 磁器所 32個, 沙器所 4個, 陶器所 13個가 記錄되어 있다.

²⁰ 拙稿, 「分院과 地方白磁의 關係試考」, 朝鮮官窯博物館, 『第2回 朝鮮官窯學術세미나』(2003).

吏들이 廣州의 백자를 구하여 갈 만큼 전국의 백자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다.²¹ 따라서 15세기 말부터는 분원백자에 자극받은 각 지방에서도 분청사기가마가 백자가마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백자가마가 생겨나는 등 전국적으로 백자요업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굴조사된 조선전기 지방백자 가마터 가운데 粉靑沙器系統이 잔존해 있는 가마들이 주로 이 시기에 속할 것이다.²² 대표적인 지방가마 유적으로는 1510년 대까지 지속된 光州 忠孝洞 가마遺蹟 W2지역 3층,²³ 역시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을 보여주는 山淸 放牧里와 安東 新陽里 가마遺蹟,²⁴ 高敞 龍山里 가마遺蹟,²⁵ 釜山 機張 下長安 가마遺蹟,²⁶ 白磁專用 가마로서 보여주는 軍浦 山本洞과 龍仁 草茭里 가마遺蹟 등이 있다.²⁷

이들 가마는 대부분 가마의 내벽 폭이 1.4~2.4m로 넓어지고 2개 가량의 分焰柱로 각 칸을 구분한 것이 특징인데, 일부 分焰柱는 천정을 받치는 불창기둥의 역할을 함으로써 단실이 아닌 分室登窯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²⁸ 특히, 高敞 龍山里 가마遺蹟의 경우는 각 칸이 계단식으로 단을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출토된 분청사기와 백자는 대부분 분원의 조질백자와 유사하게 죽절굽에 口緣이 外反되고 內底圓刻이 있는 발과 접시, 잔이 주류이다. 하지만 몸체의 側線이 斜線形으로 벌어지고 굽받침에 있어서 태토빛음(山本洞) 이외에 내화토빛음(放牧里) 내화토 받침(忠孝洞, 龍山里), 내화토 섞인 모래빛음(新陽里, 下長安) 등으로 변화되

²¹ 『中宗實錄』 4年 正月 27日, 23年 2月 6日, 32年 12月 19日, 33年 8月 18日條.

²² 姜景仁·張起熏·片山まび·權素玄, 「朝鮮時代の軟質白磁に關する基礎研究」, 『東洋陶磁』 (第三十五號, 2006), pp. 65~95.

²³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직할시, 앞의 報告書(1993), pp. 157~158.

²⁴ 釜山大學校博物館, 『山淸 放牧里 白磁窯址』 (2000) ; 京南대학교박물관, 『대구-춘천간 고속도로건설예정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군위-안동간)』 (1992).

²⁵ 호남문화재연구원, 『高敞 龍山里 窯址』 (2004).

²⁶ 부산박물관·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주), 『機張 下長安遺蹟』 (2013).

²⁷ 湖巖美術館, 「陶窯址遺蹟」, 明知大學校博物館·湖巖美術館·京畿道, 『山本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1990), pp. 211~317 ; 명지대학교박물관·용인시, 『용인 초부리 백자가마 발굴조사 보고서』 (2009).

²⁸ 拙稿, 「朝鮮時代における粉靑沙器窯と白磁窯について」, 『李朝陶磁の名品』 (佐川美術館, 2006), pp. 16~21.

었는데, 같은 받침의 백자가 동반 출토되었다. 고려말부터 이어온 태토빛음 받침은 높이가 높아 불안정하고 떼어낼 때 굵을 많이 훼손시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적합한 방식으로 이를 대체한 것이다. 하지만 耐火土나 砂粒를 이용한 받침은 포개는 그릇 사이의 간격을 많이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의 기벽이 서로 달라붙을 염려가 있어 지방백자의 기형이 점차 낮은 사선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IV. 16世紀 後半~17世紀 初 : 壬辰倭亂 前後

분청사기가 소멸하는 16세기 말에는 백자에서도 미세하게나마 양상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대체로 명종(1545~1567)에서 선조(1567~1608)년간 까지는 사무역과 밀무역으로 대명무역이 문란해지고 이전부터 제기된 官匠이 이탈과 관요제도의 해의가 지속되면서 백자의 생산은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²⁹ 더불어 倭銅의 수입 감소로 금속기가 부족해지는 등 일련의 현상들은 16세기 후반에도 백자의 수요가 여전히 높을 수 밖에서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리고 이러한 狀況은 地方에서 더욱 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³⁰

이 시기에 해당하는 分院가마에서는 良質白磁의 굵 안바닥에 ‘左’, ‘右’, ‘別’ 명이 단독으로 釉面陰刻된 것이 발견되는데,³¹ 알려진 유적으로는 大雙嶺里 1號, 武甲里 10號, 11號, 昆池岩里 1號, 2號, 觀音里 4號, 5號, 11號, 亭支里 3號 등이다.³² 그리고 ‘左’, ‘右’ 銘은 干支銘, 數字 등과 결합하면서 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위의 가마터들 가운데 발굴된 자료는 많지 않으나 ‘隆慶六(1572)’ 銘 靑畫墓誌가

²⁹ 金英媛, 『朝鮮 前期 陶磁史』 (일조각, 2011). pp. 209~214.

³⁰ 本田まび, 『壬辰倭亂 前後의 韓日 陶磁 比較研究 -日本 九州 肥前陶磁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p. 42~122.

³¹ ‘天’, ‘地’, ‘玄’, ‘黃’ 銘에서 ‘左’, ‘右’ 銘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1560년대로 比定하였다(김경중, 앞의 論文(2012), pp. 244~265).

³²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 (解說篇, 2000), p. 335.

발견된 昆池岩里 1호가 대표적이다.³³ 비록 가마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원통형갑발, 원반형 도지미와 함께 출토된 백자 가운데 죽절굽에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운 조질백자는 굽이 以前보다 낮고 안바닥이 오목하게 들여깎은 오목굽에 가까워 주목된다. 이른바 전형적인 오목굽은 분원에서 17세기에 이르러 유행하는 양식이지만 그 前兆를 보이는 이러한 형식은 16세기 말로 비정되는 廣州 亭支里 가마遺蹟에서도 수습된 바 있다.³⁴

이처럼 안바닥만을 오목하게 깎은 죽절굽에 태토빛음 혹은 모래빛음을 받치는 습관은 廣州 分院에서 17世紀 初의 炭筏洞 가마遺蹟(1608~1612년 전후), 鶴東里 가마遺蹟(1613~1617년 전후)까지 지속되며 전형적인 오목굽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운 조질백자는 1628년경부터 1636년경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祥林里 가마遺蹟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³⁵

같은 시기에 운영된 지방가마로서 발굴조사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大田 政生洞 가마遺蹟,³⁶ 全南 長城 大都里 가마遺蹟과 康津 月下里 가마遺蹟,³⁷ 慶北 尙州 好音里 가마遺蹟³⁸을 들 수 있다. 16世紀 後半, 늦어도 17世紀 初를 運營의 下限으로 하는 이들 백자가마는 완전한 分室構造를 지니며 각 칸 사이에 2~4개 가량의 불창기둥이 천정을 받치고 각 燔造室을 구분함으로써 連室登窯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尙州 好音里 4號 가마와 長城 大都里 가마는 소성실 바닥이 경사진 단을 이루고 있으면서 불창기둥이 4개씩 낮게 조성되어 이전에 비해 칸의 구분이 뚜렷하고 생산효율 또한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마遺蹟에서 출토된 백자는 모두 內底圓刻이 있고 口緣이 外反된 朝鮮前期

³³ 한국문화유산연구원, 『광주 실존읍 곤지암리 492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시굴 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2009. 07. 06).

³⁴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 (圖版篇, 1998), pp. 67~69.

³⁵ 拙稿, 「朝鮮 17世紀 前半 分院의 白磁樣式 變化」, 『美術史學研究』 224號(1999. 12), pp. 89~121 ; 한편 오목굽의 원류에 대해서 本田まび는 16世紀 中葉경 明代 粗質 靑畫白磁를 중심으로 오목굽이 보편화되는 사실을 근거로 朝鮮白磁의 오목굽이 실용적 목적으로 明代 靑畫白磁를 모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本田まび, 앞의 論文(2003) 참조).

³⁶ 1997년 海剛陶磁美術館에서 發掘調査하였으나 報告書 未刊이다.

³⁷ 목포대학교박물관·장성군, 『장성 대도리 가마유적』 (1995) ; 호남문화재연구원, 『康津 月下里遺蹟』 (2009).

³⁸ (주)동승래저·(사)대경문화재연구원, 『尙州 好音里 遺蹟 I . II』 (2009).

形式의鉢과 櫛匙가 주류이다. 다만, 일부 內灣形 櫛匙가 등장하고 굽은 죽절굽 이외에 오목굽이 함께 발견되는 것이 이전과 다른 특징이다. 특히,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 大田 政生洞 백자가마의 경우는 초벌구이를 하지 않고 죽절굽 또는 오목굽에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운 백자가 발견되었는데, 이와같은 굽받침법은 17세기에 이르러 전국에 널리 유행하는 경향으로서, 확인된 백자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6세기까지 지속된 公州 鶴峰里 粉靑沙器의 제작기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³⁹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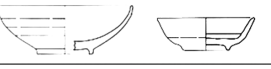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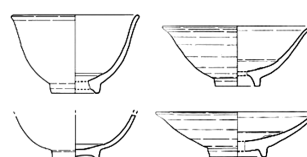
아직까지 그 편년을 명확히 확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조선전기를 대략 3단계로 나누어 그 양식전개 양상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참조 ① 官窯設置以前 시기에는 내저원각이 없는 高麗系 분청사기와 內底圓刻이 있고 口緣이 外反된 新樣式系 백자가 공존하는데, 모두 가마의 폭이 좁은 單室登窯에 匣鉢이나 원통형의 도지미를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특히 포개구이한 분청과 백자는 모두 죽절굽에 태토빚음을 받친 것이 특징이다. ② 官窯設置以後 ~16世紀 前半까지는 官窯의 設置에 따라 貢納用 분청사기가 사라지고 白磁窯業이 확산되는 시기이다. 이 때 관요는 전통적으로 역삼각형굽에 모래를 받쳐 갑발에 굽는 良質白磁와 죽절굽에 태토빚음을 받쳐 포개굽는 粗質白磁가 정착하지만, 地方의 경우는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질백자에 각종 내화토나 모래빚음을 받쳐굽는 지역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이나 접시의 형태 또한 포개굽기 용이하도록 높이가 낮고 側線이 斜線形으로 벌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가마는 이전에 간혹 보이던 1~2개의 分焰柱가 천정을 받치는 불창기둥으로 바뀌고 번조실마다 段이 생기는 등 구조적으로 발전하였고 열효율이 높아져 도지미도 圓筒形에서 圓盤形으로 낮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③ 16世紀 後半~17世紀 初에는 가마의 불창기둥이 2~4개로 늘어나면서 連室登窯의 構造를 갖추게 된 것이 특징이다. 分院에서는

³⁹ 拙稿, 앞의 論文(2003. 10).

조질백자의 경우 죽절굽의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는 변화가 보이는 반면 지방 백자에서는 죽절굽과 오목굽이 공존하면서 점차 오목굽에 모래받침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진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朝鮮 初 지방을 거점으로 한 고려계 분청사기의 제작기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자요업으로 계승되면서 백자의 확산과 朝鮮前期 陶磁樣式 形成과 展開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오목굽이나 가마 구조의 변화와 같이 대량생산에 유리한 기술은 지방에서 먼저 제기된 것임을 짐작해 수도 있었다. 이와같은 사례들은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1〉 朝鮮前期 陶磁樣式 展開

		官窯設置 以前	官窯設置以後~16世紀前半	16世紀後半~17世紀初
高麗系	粉靑沙器			
	地方白磁			
新樣式系	廣州白磁			
	地方白磁			
常燔	高台	竹節高台	竹節高台, 逆三角形	竹節高台, 內灣高台
	目跡	胎土目	胎土目, 耐火土目, 砂粒	胎土目, 耐火土目, 砂粒
	陶枕			
窯構造				